

주간 통일정세

2017-2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7.8	北 김정은, 김일성 사망 23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北 '미사일 주역' 띄우기...황병서·최룡해도 밀어내(연합뉴스)
		北, 김일성 23주기 맞아 '자강력제일주의' 선전(연합뉴스)
	7.10	北, '화성-14형' 시험발사 기념공연...김정은 참석(연합뉴스)
	7.11	北, '화성-14형' 발사성공 자축 연회...김정은 부부 참석(연합뉴스)
		北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1계급 특진...ICBM 개발 포상?(연합뉴스)
7.13	北 김정은, '화성-14형' 발사 참여자에 표창 수여(연합뉴스)	
군사	7.8	美 B-1B 폭격기 2대 한반도 전개...北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장마 속 날아든 '죽음의 백조'...대북억제 의지 과시(연합뉴스)
	7.9	WP "北 ICBM 성공 비결은 러시아 기술 덕분"(연합뉴스)
	7.11	"北 ICBM 기술 성숙시 9,700km 비행해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타격"(연합뉴스)
경제	7.10	"北, 생각보다 구매력 세다"...북중무역으로 본 북한 경제(연합뉴스)
	7.11	러시아, 올해 대북석유수출 전년대비 200% 이상↑(연합뉴스)
		아프리카 곳곳에 건물 짓고 무기 수출하는 北..."짹짹한 수익"(연합뉴스)
	7.12	엄격해진 중국...작년 친환경기준 불합격 석탄은 모두 '북한산'(연합뉴스)
7.13	中 상반기 對북한 수출 29%↑..."3월 이후 수입 급감" 반박(연합뉴스)	
사회 문화	7.8	"평양 영상물 매대서 美 애니메이션도 판매"(연합뉴스)
	7.10	가뭄 몸살 겪은 北, 이젠 장마 대비로 '분주'(연합뉴스)
		"北, 휘발유 가격 급등...자전거나 버스 이용 장려"(연합뉴스)
		유엔 "北주민 기대수명 71.9세...南보다 10년 짧아"(연합뉴스)
	7.12	北 삼복철 으뜸 보양식은 보신탕..."삼계탕 찾는 사람도 늘어"(연합뉴스)
		"北곡창지역 가뭄피해 심각...황남 농지 16% 손실"(연합뉴스)
		"북한에도 '엑소' 팬 있나?...북한발 트윗 15건 발견"(연합뉴스)
		日언론 "북중 국경에 고압 전류...탈북·밀수 거의 불가능"(연합뉴스)
7.13	北, 장애인 악기제작 지원..."보람찬 삶 누리도록"(연합뉴스)	
	北 대동강맥주축전 26일 개막..."평양야경 요지경"(연합뉴스)	
외교 국방	7.8	"美, 수일 내 알래스카서 사드로 IRBM 요격시험"(연합뉴스)
		"日, 동해 EEZ에 순시선 파견 검토...불법 北어선 대응"(연합뉴스)

7.9	北, 美 B-1B 한반도 출동 비난...“핵전쟁에 불을 달려는 도박”(연합뉴스) 中 국방부 고위 인사 “중국군, 북한군과 접촉 끊어”(연합뉴스)
7.10	러 “北 화성-14는 중거리 미사일” 입장 고수...유엔에 자료 제출(연합뉴스)
7.12	日언론 “북한 선적 추정 선박이 日어업단속선에 충돌 겨냥”(연합뉴스)
7.14	美 펠로시 원내대표 “北 미사일·기술 불량국가 유입 우려”(연합뉴스) “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7.8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
7.9	‘화성-14형’ 시험발사 기념 공연	-	-
7.10	‘화성-14형’ 발사 성공 자축 연회	-	-
7.13	‘화성-14형’ 발사 참여자 표창 수여식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7. 8.

■ 北 김정은, 김일성 사망 23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 23주기인 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며 당과 무력기관의 일꾼들,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이 있는 홀에서 북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노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한 가운데 각 군 대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음.

2017. 7. 10.

■ 北, ‘화성-14형’ 시험발사 기념공연…김정은 참석(연합뉴스)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공연을 열고 내부적인 자축 분위기를 이어나감.
-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개최함.
-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등장한 김 위원장은 여성 예술인의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냄.

2017. 7. 11.

■ 北, ‘화성-14형’ 발사성공 자축 연회…김정은 부부 참석(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축하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이 날 연회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함.

-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2일 김 위원장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원아들과 함께 식수행사를 한 이후 131일 만임.

2017. 7. 13.

■ 北 김정은, '화성-14형' 발사 참여자에 표창 수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로켓 연구개발 집단에 "새로운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훈장, '공화국 영웅'과 노력영웅 칭호, 김정일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직접 수여했으며,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등 화성-14 개발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을 공개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7. 8.

■ 北 '미사일 주역' 띄우기...황병서·최룡해도 밀어내(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 이후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을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8일 자정 김일성 사망 23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대표적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전일호 당 중앙위 위원 등 '화성-14형'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이 김정은 당 위원장의 양옆 자리를 차지함.
- 이들은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들로, 시험 발사 때마다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있었고 이번 발사 때도 동행함.

2017. 7. 11.

■ **北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1계급 특진…ICBM 개발 포상?(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미사일을 개발한 국방과학원의 장창하 원장이 중장(별 2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한 계급 승진한 것으로 11일 확인됨.
- 연합뉴스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4’ 시험발사 성공 기념 공연 관람(10일 북한 매체 보도)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장창하가 상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됨.
- 장창하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당시까지도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화성-14’ 성공 기념 공연이 9일에 열렸다는 점에서 장창하의 특진은 8일 오후나 9일 오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7. 8.

■ **北, 김일성 23주기 맞아 ‘자강력제일주의’ 선전(연합뉴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23주기인 8일 ‘주체사상’을 띄우며 ‘자강력제일주의’를 선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즐기차게 전진하고 있다”며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는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누구나 자력갱생의 강자,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7. 9

■ WP “北 ICBM 성공 비결은 러시아 기술 덕분”(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 덕분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마이클 엘먼 전 미국방부 고문은 지난 3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엔진에서 1960년대 소련의 RD-250 미사일 엔진과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함.
- 신문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수년 전 북한에 미사일 설계도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국 업체들이 현대적인 미사일유도시스템에 필요한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특히 북한이 과거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새로운 미사일 실험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기술 전수가 최근까지도 비밀리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2017. 7. 11.

■ “北 ICBM 기술 성숙시 9,700km 비행해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타격”(연합뉴스)

-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충분한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면 500kg 무게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9천700km를 비행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 미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존 실링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화성-14형의 모든 결함 해소를 전제로 이같이 주장함.
- 미사일 전문가인 그는 “북한이 당장 내일 결함을 없애진 못하겠지만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링 연구원은 특히 화성-14형의 상부에는 탈착이 가능한 ‘적재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1개의 핵탄두나 여러 개의 유인체(decoy)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침투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7. 8.

■ 美 B-1B 폭격기 2대 한반도 전개...北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 미국이 8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것임.
- 공군은 이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함.

■ 장마 속 날아든 ‘죽음의 백조’...대북억제 의지 과시(연합뉴스)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8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됨.
- 미국은 당초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틀 만인 지난 6일 B-1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며칠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도 한반도 상공에 짙은 구름이 끼는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B-1B편대는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7. 10.

■ “北, 생각보다 구매력 세다”…북중무역으로 본 북한 경제(연합뉴스)

-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월 대중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직후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음에도 북한의 구매력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보도함.
- 유엔에 따르면 석탄 수출이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2015년 초부터 작년까지 석탄 수출로 매달 평균 9천400만달러(약 1천82억원)를 벌어들였지만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이 북한의 구매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4월과 5월 북한의 대중 수입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물품은 주로 연료와 석유제품, 제철·주물용 연료인 코크스 등이며,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품목에는 석유화학 기기, 비료 제작을 위한 재료, 발동기 연료 등도 포함됨.

2017. 7. 11.

■ 러시아, 올해 대북석유수출 전년대비 200% 이상↑(연합뉴스)

-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어치를 기록해 약 74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인용해 11일 전함.
- VOA는 “러시아의 석유류 대북수출량은 올해 4월까지 약 4천100t으로 지난해 1천600t보다 약 150% 증가했다”며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다”고 밝힘.
-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 품목은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등이며, VOA는 “원유와 ‘원유 이외의 석유제품’은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판매나 공급이 허용된다”고 설명함.

■ 아프리카 곳곳에 건물 짓고 무기 수출하는 北…“짹짹한 수익”(연합뉴스)

-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 최근 수년간 초현대식 외관을 갖춘 국립역사박물관과 매끈한 디자인의 대통령궁, 국방부 청사, 군수품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섰는

- 데,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이 시설들을 건립한 주체는 놀랍게도 북한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서도 이렇듯 아프리카 남부의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WP에 따르면 유엔이 올해 내놓은 조사보고서에서 북한은 에리트레아에 군사 무선설비를, 콩고에 자동화기를 각각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앙골라와 우간다에는 군사 훈련교관을 파견함.
 - 무기 제조 및 군사훈련과 관련된 북한과의 거래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유엔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무역에서 금지된 품목과 기술을 거래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건설회사들을 활용해 아프리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함.

■ 임격해진 중국…작년 친환경기준 불합격 석탄은 모두 ‘북한산’(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검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작년 친환경 기준에 맞지 않아 불합격 처리된 석탄이 모두 북한산인 것으로 확인됨.
-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2016년 수출입 상품 질량 안전 백서’를 통해 지난해 수입산 석탄의 품질 현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산의 문제점을 지적함.
- 지난해 수입 석탄 중 친환경 기준에 맞지 않아 퇴짜 맞은 사례는 총 301회로 97만3천300t에 달했으며, 질검총국은 대부분이 수은·불소·비소·인 등 성분의 기준치 초과 때문이었고, 주목할 점은 친환경기준 불합격 석탄의 전부가 북한산이라는 점이라고 확인함.

2017. 7. 13.

■ 中 상반기 對북한 수출 29%↑…“3월 이후 수입 급감” 반박(연합뉴스)

- 중국의 대(對) 북한 제재 참여에도 올 상반기 대북 교역액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9%나 증가함.
-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13일 올해 1~6월 위안화 기준 국가별 교역량 수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13.2% 감소한 8억8천만 달러, 수출은 29.1% 늘어난 16억7천만 달러로 집계했는데, 수입이 줄었는데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중 중국의 대북 수출입 총액은 25억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0.5% 늘었음.
- 이에 대해 해관총서 측은 월별로 따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된 3월부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4개월 연속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황쑹핑(黃頌平) 해관총서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전면적인 금수가 아니다”며 “북한의 민생과 관련있는 교역, 특히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무역활동은 제재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7. 7. 12.

- **日언론 “북중 국경에 고압 전류…탈북 밀수 거의 불가능”(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정권이 탈북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두만강과 압록강변 철조망에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고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12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번 조치로 탈북과 밀수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임.
 - 중국 측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2012~2014년에 철조망이 완성됐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 반면 북한 쪽에선 2016년 가을에 설치공사가 끝난 뒤 최근 전류가 흐르게 됐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함.

라. 사회 동향

2017. 7. 8.

- **“평양 영상물 매대서 美 애니메이션도 판매”(연합뉴스)**
 - 평양 시내 영상물 판매소에서 미국 애니메이션까지 팔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8일 전함.
 - RFA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은 평양 시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

- 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판매소 매대와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함.
- 영상물 판매소에서 취급하는 영상물 중에는 북한의 영화와 음악뿐 아니라 신데렐라, 라퐁젤, 라이언 킹, 타잔, 미녀와 야수 등 미국 애니메이션이 다수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러시아, 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쿠바 등 해외 영화뿐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컴퓨터, 바둑 등 교육용 영상물과 함께 판매되고 있음.

2017. 7. 10.

■ **가뭄 몸살 겪은 北, 이젠 장마 대비로 '분주'(연합뉴스)**

- 최근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전 주민을 논밭 물주기에 총동원했던 북한이 이제는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임.
- 북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내각 농업성의 간부들은 9일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마철에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전투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업)성에서는 현재 가뭄과의 투쟁과 함께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다”고 밝힘.
-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농업성 간부들은 “우선 무더기 비(집중호우)가 쏟아져도 강물이 쪽쪽 빠질 수 있게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 독을 견고하게 쌓고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인 물을 뺄 수 있게 양수시설 보수·정비에도 힘을 쏟는다고 소개함.

■ **“北, 휘발유 가격 급등…자전거나 버스 이용 장려”(연합뉴스)**

- 김철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올해 봄 이후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확인하고 공공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등 절약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김 소장은 10일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4월께 1.5배 정도 올랐다”며,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량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소장은 “(가격) 상승이 계속되거나 혼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으며, 인터뷰에 동석한 북한 사회과학원 대외사업부의 김정국은 국가 기관이 아니라 원유 수입을 취급하는 개별기업 운영 주유소에서 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함.

2017. 7. 11.

■ 유엔 “北주민 기대수명 71.9세…南보다 10년 짧아”(연합뉴스)

- 유엔이 최근 집계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한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은 최근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17 개정판’에서 “현재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71.9세”라고 밝힘.
- 이는 세계 평균 기대수명과 같은 수준이지만, 82.4세인 한국보다 10.5년 짧고 주변국인 중국과 비교하면 4.6년, 일본보다는 12년이나 짧은 것임.

2017. 7. 12.

■ 北 삼복철 으뜸 보양식은 보신탕…“삼계탕 찾는 사람도 늘어”(연합뉴스)

- 초복(7월 12일)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개고기 식용 논란이 뜨겁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 요리를 으뜸가는 삼복철 보양식으로 꼽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평양의 보신탕 전문식당을 소개하면서 삼복철 대표 보양식은 ‘단고기’(개고기)라며 보신탕의 효능을 강조함.
- 중앙TV는 “단고기에는 칼륨, 철과 같은 인체에 좋은 광물질과 글루타민산, 펩타이드 등이 많이 들어있다”며 “이 때문에 소화흡수율이 높고 건강에도 좋다”고 개고기 예찬론을 펼침.

■ “北곡창지역 가뭄피해 심각…황남 농지 16% 손실”(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가뭄으로 황해남도를 비롯한 곡창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자료를 인용해 12일 전함.
- 유엔 합동조사단의 북한 가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강령군과 장연군 지역의 농경지 40%를 포함해 황해남도의 전체 재배면적 16%가 가뭄 피해를 보았음.
- 특히 황해북도 장풍군은 전체 농경지 면적의 59%가 피해를 봤고 밭작물인 옥수수보다 벼가 가뭄 피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에도 ‘엑소’ 팬 있다?…북한발 트윗 15건 발견”(연합뉴스)

- 한류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음악그룹 엑소(EXO)와 관련된 트윗 중 15건이 북한에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트위터 코리아가 최근 한국의 인기 음악그룹 엑소 관련 트윗을 집계한 결과

15건의 트윗이 북한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가 전함.

- 트위터 측은 그룹 엑소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지자 이를 기념해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인 10일 오전 7시 45분까지 엑소 관련 트윗 건수를 집계해 지도에 표시했는데, 집계된 결과 1천100만 건의 트윗 가운데 15개가 북한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위터 측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이 트윗은 북한 평양이나 함경남도 함흥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

■ 北, 장애인 악기제작 지원…“보림천 삶 누리도록”(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청력장애자(청각장애인)들이 바이올린 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자체로 현악기들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가 소개한 작업장은 우리의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비슷하게 당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평양을 비롯해 지역별로 상이군인을 위한 영예군인공장을 세워 상이군인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이례적인 일임.

2017. 7. 13.

■ 北 대동강맥주축전 26일 개막…“평양야경 요지경”(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제2차 평양 대동강맥주 축전이 열린다”며 “식당배 ‘대동강’호와 부두 주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서는 대동강맥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맥주, 새로 개발한 밀맥주와 함께 여러 가지 요리를 봉사하게 된다”고 밝힘.
- 이어 “축전 기간 맥주 맛보기 경기가 진행되며 손님들이 평양의 야경을 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동강’호의 유람 봉사도 있게 된다”며 “축전은 7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임.
- 북한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동강맥주 축전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맥주 축전은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북한은 대동강맥주 축전을 매년 여름 정례화 할 것으로 보임.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7. 8.

■ “美, 수일 내 알래스카서 사드로 IRBM 요격시험”(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수일 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이용한 요격시험을 실시할 전망이다.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은 며칠 안에 알래스카주(州) 코디액의 태평양 우주 발사 시험장에서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드는 단거리·중거리·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IRBM 요격시험을 하는 것은 처음임.

2017. 7. 9.

■ 北, 美 B-1B 한반도 출동 비난…“핵전쟁에 불을 달려는 도박”(연합뉴스)

- 북한은 9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에 대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박이라고 맹비난함.
-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B-1B 한반도 출격 조치를 겨냥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되어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 출격을 정례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댄 것은 결국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2017. 7. 14.

■ 美 펠로시 원내대표 “北 미사일·기술 불량국가 유입 우려”(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이 불량국가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기를 팔기 위한 로드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함.
- 그는 “북한에 대해 많은 이유로 우려하지만, 그중 하나는 북한이 (무기확산) 증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을 과시하는 것은 불량국가나 외로운 늑대 등에게 매우 위험한 기술을 팔기 위한 로드쇼나 다름없다”고 강조함.

■ “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함.
-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나. 북·중 관계

2017. 7. 9.

■ 中 국방부 고위 인사 “중국군, 북한군과 접촉 끊어”(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군과 군사적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고 중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힘.
-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관공실안전센터 주임을 맡고 있는 인민해방군 저우보 대교(한국의 대령과 준장 사이)는 9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군 간의 접촉이 끊겼다고 밝힘.
- 저우 주임은 “과거에는 북한군과 접촉과 교류가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우리(중국군과 북한군)의 관계가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어떤 접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제 유엔의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다. 북·일 관계

2017. 7. 8.

■ “日, 동해 EEZ에 순시선 파견 검토…불법 北어선 대응”(연합뉴스)

-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해 대화퇴어장 부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한다며 순시선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함.
- 극우성향의 산케이는 지난 6월 해당 수역에서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잇따라 일본 어선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신문은 일본의 전국오징어조업협회를 인용, 지난해 가을 해당 수역에서 북한과 중국 어선 수백척이 확인됐다고 하며 이 중 중국 어선의 경우 북한 측으로부터 조업권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함.

2017. 7. 12.

■ 日언론 “북한 선적 추정 선박이 日어업단속선에 총구 겨냥”(연합뉴스)

-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최근 동해 인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일본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에 소총 총구를 겨눴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7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순찰 중 괴선박을 발견했으며 이 선박의 승무원이 총을 겨눴다고 전함.
- 해당 선박은 어업 단속선의 뒤를 쫓았지만, 발포는 없었으며, 일본 정부는 분석 결과 해당 선박이 북한 선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라. 북·러 관계

2017. 7. 10.

■ 러 “北 화성-14는 중거리 미사일” 입장 고수…유엔에 자료 제출(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타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무국에 제출

한 서한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 있는 ‘보로네슈’ 레이더 기지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면서 “미사일 비행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고도는 535km, 비행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함.

- 러시아 측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화성-14형의 실제 사거리는 2천여km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며, 러시아는 이 서한에 간략한 자국 국방부 보고서와 미사일 비행경로를 담은 지도를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 특이사항 없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10	강경화 “세컨더리보이콧 옵션, 미국측과 협의중”(연합뉴스)	
		강경화 “한미 정상회담서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연합뉴스)	
	7.11	한미일 6자수석들 “北미사일 심각 도발…신규 제재로 대응”(연합뉴스)	
	7.13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연합뉴스)
	7.14		트럼프 “한미FTA, 끔찍한 거래…한국과 재협상 막 시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7		中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연합뉴스)
	7.10		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환영…“남북 대화 지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11		日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정현백 장관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외교부 “위안부 진실 후세에 알리는 노력 계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7		中, 美전략폭격기 B-1B 남중국해 비행에 “중주권 훼손말라”(연합뉴스)
	7.9		시진핑, 트럼프 회답서 “사드 반대”...“북핵은 대화와 협상으로”(연합뉴스)
	7.10		美·印·日, ‘역대 최대’ 연합훈련 시작...中 “특정국 겨냥 안돼”(연합뉴스)
	7.11		주미 중국대사 “중국, 한반도 전쟁·혼란 절대 용납못해”(연합뉴스)
	7.12	美 “세컨더리 제재 계속 검토중...中, 훨씬 더 많이 제재해야”(연합뉴스)	中, 美日 대북압박 요구에 “북핵문제 핵심은 북미갈등”(연합뉴스)
			美 사드 요격시험 성공발표하자 中 “사드 반대” 재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9	트럼프·아베 “모든 나라가 北 압박하도록 공동노력 배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8	트럼프·푸틴, 獨G20서 첫 양자회담 ...“북핵·시리아 등 논의”(연합뉴스)	
	7.10	틸러슨 美국무 “대러제재 유지”...미러 정상회담 후 첫 입장(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대선개입 안했다는 푸틴 주장 절대 안믿어”(연합뉴스)	
	7.11	트럼프 “미·러 사이버 보안대 불가능”...13시간 만에 무릎 꿇어(연합뉴스)	러 외무부 인사 “美 외교관 30명 맞추방 조치 준비 중”(연합뉴스)
	7.12	‘스모킹건’ 나왔다... 트럼프 장남-러 변호사 이메일 공개 파문(연합뉴스)	
	7.13	美CIA 국장 “러, 작년 美대선 개입 명백...오래전부터 개입해”(연합뉴스)	러 외무 “트럼프 주니어-러시아 내통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연합뉴스)
		트럼프 “푸틴과 매우 매우 사이 좋아...핵강국간 관계 당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8	시진핑 “美 대북독자제재 반대”...아베에 “역사문제 타협 안 해”(연합뉴스)	
	7.12		아베 “北에 석유수출 중지” 요구에 시진핑 “독자제재 반대”(연합뉴스)
	7.13	中시진핑, 日아베에 ‘영토문제와 일대일로 분리하자’(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11	중러관계 황금기 왔다...中웨이보서 푸틴비판 검열 개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7.8	푸틴-아베, 쿠릴열도 공동경제활동 협의 가속화-북핵문제 논의(연합뉴스)	
	7.12	러시아-일본, 쿠릴 4개섬 정기항로 개설 검토(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7. 10.

■ 강경화 “세컨더리보이콧 옵션, 미국측과 협의중”(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음.
-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경화 “한미 정상회담서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FTA 재협상 합의 여부에 대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있지는 않았다.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힘.
-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FTA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다.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관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부분, 전반적 무역 적자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함.

2017. 7. 11.

■ 한미일 6자수석들 “北미사일 심각 도발…신규 제재로 대응”(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11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 신규 제재 결의 채택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3국 대표들은 협의에서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능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 채택 및 기존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음.

2017. 7. 13.

■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2017. 7. 14.

■ 트럼프 “한미FTA, 끔찍한 거래…한국과 재협상 막 시작”(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함.
- 이날 발언은 애초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이례적으로 백악관은 하루 뒤인 13일 전문을 언론에 배포함.

나. 한·중 관계

2017. 7. 7.

■ 中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이 이번 회담이 양국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함.
- 경쑤(耿飫)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과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경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지역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이 이런 종류의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임.

2017. 7. 10.

■ 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환영...“남북 대화 지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경쑤(耿飫)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평론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표명함.
- 경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구상을 제의했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7. 7. 11.

■ 日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정현백 장관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국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겠다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각료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문제 합의 취지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이번 정 장관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한국에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함.

■ 외교부 “위안부 진실 후세에 알리는 노력 계속”(연합뉴스)

- 외교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겠다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바 있다고 확인한 뒤 이같이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7. 7.

■ 中, 美전략폭격기 B-1B 남중국해 비행에 “중주권 훼손말라”(연합뉴스)

-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함.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B-1B 랜서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힘.
- 경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해 왔다”고 강조함.

2017. 7. 9.

■ **시진핑, 트럼프 회답서 “사드 반대”...“북핵은 대화와 협상으로”(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답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가 대화와 상황통제를 위한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재차 표명함.
- 시 주석의 사드 반대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북 추가제재 필요성을 촉구함.

2017. 7. 10.

■ **美·印·日, ‘역대 최대’ 연합훈련 시작...中 “특정국 겨냥 안돼”(연합뉴스)**

- 인도군과 중국군이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 인도가 참가하는 3개국 연합 해상훈련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10일 시작함.
- 인도 뉴스채널 위온 등에 따르면 말라바르로 명명된 이번 연합훈련은 항공모함 2척 등 함정 15척, 잠수함 2척,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오는 17일까지 계속됨.
- 이번 연례 훈련에는 특히 미국에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즈, 인도에서 러시아제 INS비크라미디티아 항공모함이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도 항공모함급으로 불리는 대형호위함 이즈모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짐.

2017. 7. 11.

■ **주미 중국대사 “중국, 한반도 전쟁·혼란 절대 용납못해”(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11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7회 마·중 민간전략대화의 축사에서 한반도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견해를 표명함.
- 그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은 북한의 대북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북 제재에서 정상적인 북중 무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中, 美日 대북압박 요구에 “북핵문제 핵심은 북미갈등”(연합뉴스)**

-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 주문에 대해 북미 갈등이 핵심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일축함.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일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미 여러 차례 밝힌대로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미갈등이고, 본질은 안보문제”라고 지적함.
- 이어 “최근 소위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북핵문제에 대해 전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함.

2017. 7. 12.

■ **美 “세컨더리 제재 계속 검토중…中, 훨씬 더 많이 제재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실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함.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삼자 제재를 기꺼이 검토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면 그 나라들을 제재하는 것을 기꺼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중국과 계속 대화하면서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 고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이 (북한을 제재)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美 사드 요격시험 성공발표하자 中 “사드 반대” 재확인(연합뉴스)**

-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를 재확인함.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사드 요격 시험 성공에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고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
- 경 대변인은 “우리의 미사일 요격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유관 각국이 미사일 요격 문제에서 모두 신중하게 행동하고 전 세계와 지역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7. 7. 9.

■ 트럼프-아베 “모든 나라가 北 압박하도록 공동노력 배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불법행위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데 공동 노력을 배가하기로 함.
- 미 백악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두 정상은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힘.
- 두 정상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은 모든 방어능력을 총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다. 미·러 관계

2017. 7. 8.

■ 트럼프-푸틴, 獨G20서 첫 양자회담…“북핵·시리아 등 논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별도 양자회담을 열었음.
-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 날 두 정상 간 회담은 당초 30여 분으로 예정됐으나 실제론 2시간 이상 진행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주 길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다. 두 대통령이 모두 각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톤으로 시리아, 우크라이나, 한반도, 사이버 안보와 다른 일련의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힘.

■ 트럼프-푸틴 북한문제 ‘이견’…“비핵화 달성 놓고 전략 차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이견을 드러냄.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두 정상의 첫 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매우 좋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음을 전함.

2017. 7. 10.

■ **틸러슨 美국무 “대리제재 유지”…미러 정상회담 후 첫 입장(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함.
- 보도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러시아 측 셰르파(실무담당자)인 스페틀라나 루카슈은 이날 자신의 영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은 G20에서 디지털 경제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설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파트너들에게 이에 대한(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러시아가 절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함.
- 루카슈의 설명은 이날 G20 정상회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디지털 경제 문제 논의 세션과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양자회담에서 한 푸틴의 발언에 대한 것으로 보임.

■ **백악관 “트럼프, 대선개입 안했다는 푸틴 주장 절대 안믿어”(연합뉴스)**

-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적 없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강조함.
-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고 전한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함.
-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푸틴의 의혹 부인 이후) 즉각 러시아의 개입 혐의를 다뤘다”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두 차례 그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단순히 5분짜리 대화가 아니었다”고 강조함.

2017. 7. 11.

■ **트럼프 “미·러 사이버 보안대 불가능”…13시간 만에 무를 끊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러 사이버 보안대 창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가 거센 후폭풍이 일자 13시간 만에 스스로 발언을 뒤집음.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밤 트위터 계정에서 “나와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대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내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음.
- 불과 13시간 전 트위터에 “푸틴 대통령과 나는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사이버 보안대를 조직해 선거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자화자찬성 글을 올린 것을 스스로 식언한 것임.

■ **러 외무부 인사 “美 외교관 30명 추방방 조치 준비 중”(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해 말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무더기 추방에 대한 보복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수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가 11일(현지시간) 밝힘.
- 이 관계자는 이날 자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 기사에서 “러시아가 30명의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맞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러 첫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난해 말 러시아 외교관 무더기 추방 당시 취했던 자국 내 러시아 공관 시설 폐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같은 맞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2017. 7. 12.

■ **‘스모킹건’ 나왔나…트럼프 장남·러 변호사 이메일 공개 파문(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건네받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변호사를 만났다는 특종보도를 잇따라 터뜨린 뒤 이 회동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이메일 대화’가 공개됨.
- 공개한 이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자신. 그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이 만남을 주선한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의 홍보담당자인 로브

골드스톤과 나는 이메일 대화를 전격 공개함.

- 당장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 대화는 그가 아버지의 대선운동을 위해 적대적 국가의 정부로부터 직접 정보를 건네받기 위해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美CIA 국장 “러, 작년 美대선 개입 명백...오래전부터 개입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음.
- 폼페오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미 정보·안보 당국 주요인사들과 한 만찬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은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CBS방송이 전함.
- 그는 “러시아는 4년 전인 2012년 선거와 그 이전에도 선거 주기 때마다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2017. 7. 13.

■ 러 외무 “트럼프 주니어-러시아 내통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인사들 간 내통에 관한 주장은 ‘파리로 코끼리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키야와의 접촉을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을 도우려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그는 “오늘 아침에 TV를 켜니 모든 서방 방송들이 이에 관해서만 얘기하더라”며 “중량급 인사들이 파리에서 코끼리를 만드는 것이 놀랍다. 어찌면 파리로 없었는지 모른다”고 비꼬음.

■ 트럼프 “푸틴과 매우 매우 사이 좋아...핵강국간 관계 당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매우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엄청나

- 게 강력한 핵보유국이며 러시아도 그렇다. 모종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힘.
- 또 독일 함부르크에서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한 게 좋은 신호이며 양국이 시리아 정전과 같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슈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함.

라. 중·일 관계

2017. 7. 8.

■ 시진핑 “美 대북독자제재 반대”...아베에 “역사문제 타협 안 해”(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함.
- 일본 교도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미국이 최근 북한과 관계있는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중국은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 이어 일본과 갈등을 겪는 역사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일 양국이 수교 이후 체결한 4개 정치문건과 4개 항의 원칙을 통해 역사와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했다”면서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역설함.

2017. 7. 12.

■ 아베 “北에 석유수출 중지” 요구에 시진핑 “독자제재 반대”(연합뉴스)

-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국이)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낸 뒤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중지를 요구함.
-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독자제재에 반대한다”고 답함.

2017. 7. 13.

■ “**중시진핑, 디아베에 ‘영토문제와 일대일로 분리하자’**”(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양국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지만, 양국의 경제관계 발전을 방해하면 안된다”며 양국 외교에서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하자고 제안함.
- 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시 주석의 이번 제안은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함.

마. 중·러 관계

2017. 7. 11.

■ **중러관계 황금기 왔나…中웨이보서 푸틴비판 검열 개시**(연합뉴스)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글들이 중국 당국의 검열로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 고위층 인사들만 누리는 검열 ‘특권’이 이례적으로 부여된 것은 최근 돈독해진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방증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웨이보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게시물이 일제히 사라짐.

바. 일·러 관계

2017. 7. 8.

■ **푸틴-아베, 쿠릴열도 공동경제활동 협의 가속화·북핵문제 논의**(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었음.

- 아베 총리는 회담을 시작하며 “일본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신뢰 강화 조치로서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열도/쿠릴 4개 섬)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집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해묵은 문제들(영토 분쟁 등)을 해결하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2017. 7. 12.

■ **러시아-일본, 쿠릴 4개섬 정기항로 개설 검토(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일부 지역과 홋카이도를 잇는 정기항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2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4개 섬 중 구나시리(國後)와 홋카이도 네무로(根室)항을 잇는 정기항로 개설을 내달 하순 열릴 양국 외무차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8월 모스크바에서 차관급 협의를 열기로 합의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10	웹비어 사건 여파 북한여행 경각심 고조(자유아시아방송)
	7.12	北 건설노동자 러시아 극동서 인기...“월급 절반 이상 北에 상납”(연합뉴스)
		킹 전 특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별도로 이뤄져야”(자유아시아방송)
		미 의원들 “대북 정보유입? 인권개선 법 속도내겠다”(자유아시아방송)
7.13	NYT “북한 노동자들, 블라디보스토크서 노예 생활”(미국의소리) 美, 김정은 정권 흔들 영상물 제작 대북송출 방안 추진(연합뉴스)	
7.14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 용납 못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7.9	北, 식량사정 악화로 아사자 발생(자유아시아방송)
	7.10	北 주민 아사사태의 실상(자유아시아방송)
	7.12	유엔 “북한 가뭄 피해 황해도 집중...일부 재배면적 60% 피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7.12	올해 상반기 탈북민 입국 20% 감소...여성비율 85%(연합뉴스)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탈북 소재 VR 애니 다큐 제작(연합뉴스)
		7.13
대북지원	7.8	
	7.13	미 북한여행금지법에 인도적 지원은 제외될 것(자유아시아방송)
	7.14	유엔, 북한 장마철 대비 긴급대응책 마련(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7. 10.

■ 웹비어 사건 여파 북한여행 경각심 고조(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웹비어 씨의 죽음에도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음. 외국인의 북한 감금 및 억류사건이 끊이지 않자, 북한 방문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미국의 폭스뉴스는 최근, 10쪽짜리 교육용 책자 ‘여행자수칙(Notes for Travellers)’을 입수했다며, 이 책자는 여행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오스트랄리아 인터넷 매체인 뉴스닷컴(news.com.au)도 이 책자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책자에는, 사전에 예약이 된 관광의 경우 북한 입국비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전력난 때문에 평양을 벗어나 외곽으로 갈 경우 손전등은 필수이며, 북한에 관한 유인물과 미국 국기는 절대로 지참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음.
- 결국 북한에서의 여행은 거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극심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며,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 억류되는 황당한, 하지만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임.

2017. 7. 12.

■ 北 건설노동자 러시아 극동서 인기...“월급 절반 이상 北에 상납”(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어듦. 통일부는 12일 올해 1~6월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작년 동기 749명에 비해 20.8% 감소했다고 밝힘.
- 2011년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듦. 2011년 2천706명에서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천275명까지 감소했음. 그러다 2016년 1천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체제하의 통제 강화 때문으로 보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국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고압전선이 설치되고 탈북 시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해짐.

-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 중 여성이 85%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띄어.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줄곧 높은 수치를 유지해옴. 작년까지 입국한 총 3만805명의 탈북민 중에 남성은 8천891명으로 29%에 그친 반면 여성은 2만1천914명으로 71%에 달함.

■ 킹 전 특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별도로 이뤄져야”(자유아시아방송)

- 대북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힘. 킹 전 특사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주관한 아시아 인권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킹 전 특사는 이어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 지원을 계속할 것과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함. 반면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의 출국을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임.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7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했던 그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힘.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공론화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킹 전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북한 정권이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를 외부세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는 대북 정보유입을 통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북한 정권을 주민들의 이해와 열망에 더 부응하도록 압박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임. 한편 킹 전 특사는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북한여행 전면 금지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사안 등을 목적으로 한 북한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 의원들 “대북 정보유입? 인권개선 법 속도내겠다”(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위원장, 테드 포 반테러·비확산 소위원회위원장, 일리노이 주의 라자 클쉬나무르티 의원, 텍사스 주의 피트 세션스 의원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즉 KCC가 이날 주최한 제9차 연례 북한인권 집회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참혹한

-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함.
- 로이스 위원장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대북 방송 강화 등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로이스 위원장은 수 년간 미국 청문회에 참석한 탈북자 증언이나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부를 비난함.
 - 의회규정위원회 위원장인 세션스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 채택을 위해서 상원의 협조를 강조했고 요호 아테소위 위원장은 북한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 발의했던 ‘북한법 2017(H.R. 2397)’의 의회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함.

2017. 7. 13.

■ NYT “북한 노동자들, 블라디보스토크서 노예 생활”(미국의소리)

-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함.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한 러시아 업체 대표는 이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함. 또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은 안하고 잠도 많이 자지 않는다고 하며, 그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같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노동자 수 십 명을 고용한 한 회사 대표는 월급 가운데 정부에 압수당하는 금액이 2006년에는 월 1만7천 루블, 미화 285 달러였지만 지금은 5만 루블, 미화 841 달러로,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자신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수당하고, 20-30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0% 정도를 가져간다고 말함.
- 이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착취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美, 김정은 정권 흔들 영상물 제작 대북송출 방안 추진(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흔들 방안의 하나로 탈북자의 성공스토리나 풍요로운 미국 사회 등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한국을 통해 북한에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함.

- 북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대북제재강화법 입법 이후 자유 아시아(RFA)방송,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예산을 배정해 북한에 보낼 이런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음.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영상물을 이용한 북한 흔들기 차원에서 이 방안을 고안해낸 것으로 전해짐.
-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휴전선 근처에서 송출하는 대북방송을 통해 영상물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DVD에 영상물을 담아 풍선에 담아 보내는 방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힘들고, 중국에 나온 북한 상인에게 건네는 방식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북 방송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7. 7. 14.

■ **미 국무부 장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 용납 못해”(미국의소리)**

- 설리번 국무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실태와 관련해 특히 북한 당국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를 지적함. 설리번 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댓가로 매년 수 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있는 나라들은 이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설리번 장관은 수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함. 설리번 장관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함.
-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됨.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특히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송환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7. 9.

■ 북, 식량사정 악화로 아사자 발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되어 최근 아사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인민은 굶는데 미사일 발사에 거금을 들이고 있는 북한당국에 대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까지 발생하는데도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을 향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소식통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은 올해 초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한 때문에 식량이 골고루 회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농촌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전기부족으로 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혀버린 것도 식량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그러면서 소식통은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이동제한을 조금만 풀어 놓으면 굶어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식량이 회전되지 않아 인민들이 굶어죽는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라고 강조함.

2017. 7. 10.

■ 북 주민 아사사태의 실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현지 소식통들은 “올해 황해북도에서만 수백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했다”고 일치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북한 현지 소식통들은 올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지역은 황해북도라면서 지난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수백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에도 황해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함. 곡창지대인 황해북도가 매해 식량난을 겪는 원인은 북한이 군량미의 절반인 60만톤을 그곳에서 거둬가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힘.
- 북한에서 군량미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먹일 식량뿐 아니라 사무(공무)원들에게 줄 배급도 포함된 개념이라며 이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이 군량미라는 명목으로 농촌에서 식량을 마구 거두어들이던 사정에서 비롯됐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임.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황해북도의 한해 평균 알곡생산량은 90만 톤인데 그중 60만 톤을 해마다 군량미로 바쳐야 한다”며 “한해 농사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이 없이 군량미 60만 톤이라는량은 무조건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해 평균 알곡생산량인 90만 톤에서 군량미로 거두는 60만 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톤으로 도 내 농민들의 배급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농사가 잘 안된 해에는 군량미를 거두고 나면 배급을 줄 식량여유가 없다”고 전함.

2017. 7. 12.

■ 유엔 “북한 가뭄 피해 황해도 집중... 일부 재배면적 60% 피해”(미국의소리)

-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이 올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VOA’가 단독 입수한 유엔 합동조사단의 북한 가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 전체 재배 면적의 16%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강령군과 장연군 지역 농경지 40% 이상이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또 함경북도 장풍군은 전체 재배 면적의 59%가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 조사단은 밝힘.
- 유엔 조사단은 황해남북도와 남포시의 경우 옥수수보다는 벼가 가뭄의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밝힘. 또 평안남북도는 황해도보다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벼 보다는 옥수수의 피해가 더 컸다고 밝힘.
- 북한의 지난 2015년 총 곡물생산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가량 감소함. 유엔 조사단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남포시 지역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 긴급대응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7. 7. 12.

■ 올해 상반기 탈북민 입국 20% 감소...여성비율 85%(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 통일부는 12일 올해 1~6월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작년 동기 749명에 비해 20.8% 감소했다고 밝힘.
- 2011년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옴.

2011년 2천706명에서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천275명까지 감소함. 그러다 2016년 1천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체제하의 통제 강화 때문으로 보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국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고압 전선이 설치되고 탈북 시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해짐.
-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 중 여성이 85%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띄어.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줄곧 높은 수치를 유지해옴. 작년까지 입국한 총 3만805명의 탈북민 중에 남성은 8천891명으로 29%에 그친 반면 여성은 2만1천914명으로 71%에 달함.
- 북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며 경제활동을 하다 탈북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탈북 소재 VR 애니 다큐 제작(연합뉴스)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세계 최초로 탈북을 소재로 한 VR(가상현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선보임. 연합뉴스 제작진은 VR 전문 제작사 감성시대이엔엠, 애니메이션 스타트업 워킹사이클스튜디오와 함께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VR 다큐 ‘길 위의 날들’(The days of the road)을 제작 중이라고 12일 밝힘. 이번 VR 다큐는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참신하게 풀어냄.
- 연합뉴스 제작진은 중국과 라오스, 미국 등 1만km가 넘는 탈북민들의 여정에 직접 동행해 이를 VR 카메라에 담음. VR 영상의 특징에 따라 실제 탈북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해 VR 저널리즘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합뉴스는 이번 작품을 통해 북한을 갓 탈출한 탈북민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지 않겠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벌목소의 실태를 고발함. 제작총괄을 맡은 황대일 연합뉴스 콘텐츠총괄본부장은 “촬영 기간만 총 7개월이 걸렸다”며 “저널리스트로서 정확한 팩트체크와 탈북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함. 이번 작품의 제작은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양민 학살 사건을 다룬 아리 폴먼 감독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바쉬르와 왈츠를’(2008)의 제작양식을 따름.

2017. 7. 13.

■ **이산상봉행사서 정부 역할, 주도→지원 전환해야(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 업무로 전환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통일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3일 한적 본사 양리뒤낭홀에서 개최한 ‘제4회 남북 간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전략세미나’에서 “지금같이 (문제인) 정부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같은 권위 있는 기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주장함.
- 고 이사는 “남북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산가족 사업을 현재의 ‘정부 주도’와 적십자 주관’ 구도에서 ‘정부 지원’과 적십자 주관’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고 이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적십자사에 집중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검토하여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문제와 평화 문제에 전념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가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남북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이번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으로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제보다 앞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함.

■ **40대 탈북민, 재입북해 부인 데리고 탈출해 국내 입국(연합뉴스)**

-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13일 확인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강씨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전함.
- 지난 2015년 북한을 처음 탈출했던 강씨는 2년 6개월여 만에 탈북→입국→재입북→재탈북→재입국 과정을 반복함.

- 정부 소식통은 “강씨가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재탈북했다고 들었다”며 “그의 부인은 최초 탈북이어서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경찰은 현재 강씨가 지난해 재입북하게 된 동기와 다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한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재입북한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강씨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7. 8.

■국제적십자, 북한 홍수 대비 구호품 비축(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 IFRC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구호물품을 비축해 놓았다고 밝힘. 이 기구의 그웬돌린 팡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에 대비해 북한 전역 7개 적십자창고에 구호물자를 비축해 놓았다고 밝힘. 홍수 등 재난 시 1만5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방수포와 가족용 텐트, 개인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물통 등을 비축해 놓았다고 함.
- 팡 소장은 추가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5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구호물품을 비축해 놓을 것이라고 밝힘. 국제적십자사는 또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난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와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함. 아울러 북한 전역에서 수 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과 응급 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음.
-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발생 시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현재 이동식 수질정화기 6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동식 수질정화기 1대로 4천여 명이 하루 마실 수 있는 분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음.

2017. 7. 13.

■ **미 북한여행금지법에 인도적 지원은 제외될 것(자유아시아방송)**

-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애덤 시프(Rep. Adam Schiff) 의원 측은 미주한인위원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 CKA)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단체 활동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차원의 외교증진 활동을 위한 북한 방문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 미주한인위원회의 샘 윤 사무총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여행 통제법안(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H.R. 2732)’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시프 의원측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촉구한 이 단체의 청원운동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고 말함.
- 윤 사무총장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방문을 통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추진한 풀뿌리 운동이 작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함.
- 시프 의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여행통제법안’은 북한 관광을 통제할 것이라고 확인함. 그러면서 아직 문구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달 말 이전에 법안의 문구에 관해 의논하고 조정하는 기회(mark-up)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함.
- 시프 의원은 최근 미국 등 서방인들의 북한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미국인의 북한 관광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함. 13일 현재 공동발의자인 조 월슨 의원 등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2017. 7. 14.

■ **유엔, 북한 장마철 대비 긴급대응책 마련(미국의소리)**

-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한 재난 긴급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VOA’가 단독입수한 유엔의 ‘재난 긴급대응 준비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식량안보와 식수, 위생, 영양, 임시 거처,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대응책을 마련함.
-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세계기아원 조는 긴급 재난 시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업 물자를 확보해 지원하고, 피해 규모와 식량 지원이 필요한

- 수혜자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기계와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임.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국제적십자사(IFRC), 아일랜드 구호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와 함께 식수와 위생을 책임질 계획임. 우선 수재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이화장실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임.